

신년사

정보통신산업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전개해 나갈 터



기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와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거대한 자본과 인력을 소유한 국가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산업사회였던 반면, 21세기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가가 세계 속에서 당당히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IMF 체제라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토록 실감있게 다가온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정부는 21세기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정보통신 분야를 국가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산업계도 이에 부응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정보통신 분야는 지난 '98년 IMF 경제 체제하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1세기 국가 핵심 산업 및 전략사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국가정보화의 촉진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계와 학계는 힘을 모아 정보통신 발전과 국가 정보화 촉진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협회도 이에 부응하여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을 통한 사업환경 개선 및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활용 전문인력을 계속 육성·발굴함으로써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의 확대 운영을 통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업계의 수익 안정성 확보는 물론,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문화 정착을 적극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실 있는 각종 정보통신산업통계 자료 및 부문 비교통계 등을 국내의 각급 기관과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정책 및 경영전략 수립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Y2K문제 해결을 위하여「Y2K 인증센터」를 설립 하여 민간부문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내 투자유치 종합안내 DB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 산업체의 해외 수출 지원 및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해외 정보통신관련 유관기구·단체와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 증대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의 탄력성 확보와 신규기술의 조기사업화 촉진을 위해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

'99년도에는 국내·외 환경이 다른 어느해 보다도 급변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보호와 육성의 시대에서 자율과 경쟁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자국의 경쟁력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냉혹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1세기는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여부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99년도는 어느해 보다도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저희협회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협회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물심양면 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월 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정 장 호